

주일 1부 예배 1. Haupt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2:00	교육관 지하 Bildungsraum UG
주일 2부 예배 2. Haupt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2:55	본당 Philippuskirche
영유치부 예배 Kleinkinder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3:00	교육관 2층 Bildungsraum 2. OG
아동부 예배 Schulkinder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3:00	교육관 1층 Bildungsraum EG
청소년부 & HCI 예배 Jugend- & HCI-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3:00	Gemeindesaal
청년부 예배 Gottesdienst f. junge Erwachsene	월 마지막 주일 jeden letzten So. im Monat	14:30	본당 Philippuskirche
금요 비전예배 Freitagsgottesdienst	매 금요일 jeden Freitag	19:00	Gemeindesaal

❖ 예배 위원

	대표기도		봉헌위원	봉헌특송
	1부	2부		
9월 6일	이수아	이재원	순7	-
9월 13일	이준서	이우영	순7	-

8월 30일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
순6 육은선	순7 최유미	봉사부	순4 이율리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헌금	기타	건축헌금누계
676,56	0,00	195,00	600,00	300,00	0,00	0,00	791.071,65

- 전교인 가족 예배 - 12:55 (Familiengottesdienst - 12:55 Uhr)

* 표는 일어서서

금요 비전예배 | Freitagsgottesdienst

경배 찬양
Lobpreis

기도회
Gebetsstunde

금요예배 찬양팀
Lobpreisteam für Freitagsgottesdienste

교회를 위한 기도회 | 인도: 박종호 장로
Gebetskreis für die Gemeinde | Leitung: Presbyter J. H. Park

지난 주일 설교 말씀 | Predigt des letzten Sonntags

[먼저 내미신 화해의 손길] (고린도후서 5:14-21)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사랑하고 기뻐하며 위로를 얻지만, 관계가 깨어질 때에는 깊은 아픔과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영긴 관계가 풀리고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가 까워질 때 우리는 안도와 평안을 누립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화해’가 필요합니 다. 그런데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결정적인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구원의 사건을 특별히 ‘화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 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후 5:18)고 선포합니 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해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 야가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 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잘못된 사람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쪽이 분명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화해는 정반대 의 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 인인 우리를 향하여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미신 화해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 도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 를 해결하심으로 온전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7)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감정이나 확신 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며 하나님 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구원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아는 데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과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해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안내 | Für neue Gemeinemitglieder

❖ 오늘 쾰른한빛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 교육관에서 담임목사님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예배 후 출구 안내 쪽으로 나오시면 새가족부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 Bekanntmachungen

❖ 선교부 지난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7박 8일간 케냐 비전트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 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담임목사 동정 류용덕 담임목사님과 류진영 사모님께서 9월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 HCI & Jugend Worship Night

- 9월 12일(토) 19시, 교회 Gemeindesaal에서 HCI와 Jugend가 함께 준비하는 Worship Night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8월, 9월 사역 & 행사 | Kirchliche Arbeit & Veranstaltungen in August, September

8월 30일	임원회		
9월 6일	진급예배		
9월 12일	찬양부	하반기 세미나	
9월 12일	HCI	Worship Night	Gemeindesaal
9월 20일	샬롬찬양대	봉헌찬양	
9월 20일	교육부	하반기 교사세미나	
9월 26일	선교부	Mittagstisch	
9월 26일	순관리부	순장반모임	

교우 소식 | Von den Gemeinemitgliedern

❖ 결혼 김화수-김효은(8일), 박인혁-곽진형(22일)

9월의 기도 제목 | Gebetsanliegen des Monats

❖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표어 아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며 모든 공예배(주일, 금요)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항상 충만하여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기 도합니다.

❖ 9월 6일 진급예배와 20일 교사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이 진급하면서 하나님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주님의 큰 은혜가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기도 합니다.

❖ 순 모임이 방학을 마치고 하반기에 다시 시작됩니다. 순모임을 통해 한빛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 양식을 먹이는 순장들이 성숙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 교회가 주일과 금요일예배 뿐 아니라 교육부 모임과 주중 모임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 의 은혜로 속히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